

그녀를 사랑한다는 건

윤재웅

그녀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 순간 나의 눈이 멀었다.
사랑하는 여인일지라도 고백을 하고 결혼을 한다는 건
세상 속매이었던 내겐 너무 떨려 두렵기조차 한 과정이었다.

결혼과 함께 지옥에서 천국으로 순간이동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와 설렘은
그런 두려운 과정을 견디게 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결혼하여 사는 날수가 더하면서
눈에 띄어졌던 비늘이 한 꺼풀 벗겨지기 시작했다.
천국은 간데없고 지상에 남겨진 나를 발견했다.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말해야 아냐? 상상대로다.

성격부터 아홉까지 어쩔 그리 닮은 점이 하나도 없는지
우린 서로를 로또라고 불렀다.
도대체 나아지지 않는 그녀의 단점이 견디기 힘들어
이렇게 살아야하나 회의가 오는 순간을 맞기도 했다.
이게 왜 결혼 전엔 보이지 않았을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어쩌면 우린 지상에 남겨진
가장 불행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부부로 산 지 24 년.
여전히 그녀와 나는 극과 극의 성격 그대로 유지하며 살고있다.
전에도 봐왔던 그녀의 단점을 여전히 보면서 살고 있다.
그녀도 나와 같은, 어쩌면 나보다 더한 절망을
나를 알아가면서 느끼는 순간이 분명 있었을거다.
인정한다. 많았을거다.

그런데 서로의 단점과 성격차이가
결혼 전에 보이지 않았던 건 축복이었다는 걸
살아가면서, 함께 거친 강을 헤치고
사나운 맹수가 우글거리는 세상이라는 밀림을 함께 지나면서 깨달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지난 24 년동안 나는 나를 더 알게 되었고
그녀를 더 알게 되었다.

내가 견뎌야했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단점은
나와 정확히 대척점에서 나의 모남과 못남을 직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성숙으로 이르게 했다.

나 자신을 더 알게 된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걸 견뎌낸 그녀는 얼마나 대단한지.
나의 부족함을 인지하게 되면서 (이 지점이 성숙의 문턱이 아닐까 ㅋ)
그녀의 가치를 appreciate 하게 되었고
거기 빛나는 그녀를 발견하게 되었다.

항상 그랬던 그녀였는데
그제서야 내 눈에 비늘이 진정으로 벗겨지는 경험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를 알아간다는 건 우주를 알아가는 것에 견줄 신비임을 깨닫는다.
아니, 우주가 감히 그녀에 견줄까.

우린 여전히 함께이고
앞으로 알아갈 서로에 대해, 함께 살아갈 여정에 대해
여전히 미숙하지만
이땅에서의 여정을 마칠때까지
대단한 그녀와 기쁨과 환희 뿐만 아니라
좌절과 슬픔, 용납과 성숙까지
사랑하는 이들이 겪는 그런 순간들을
언제까지고 되풀이할 걸 기대한다.

그녀를 사랑한다는 건.

.....